

# 소득공제 장기펀드 초반 흥행 실패

## 출시 상품 대부분 10일 지나도 1억 못넘어 경기 불황·원금 손실 우려 장기 투자 꺼려

펀드 시장에 활기를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사실상 초반 흥행에 실패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유자금 최소 5년 이상 묶어둬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소장펀드 판매를 시작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지역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

하기만 하다. 특히 투자운용사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연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문만 있을 뿐 가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기준으로 자산운용사와 시중은행이 출시한 소장펀드 상품에 고객들이 호응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상품의 설정액이 1억원 이하로 남았으며, '한국밸류10년투자' 등 6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8일까지 10여일간 광주·전남지역 농협은행을 통해 가입한 실적이 1000여계좌, 1억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3월 재형저축 출시 첫 날에만 600여계좌가 판매된 것과 비교해 낮은 성적이다.

국민은행도 지난 28일까지 광주와 전남 영업점에서 가입한 실적이 500여계좌에 불과했다. 다른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도 영업점별로 간간히 문의만 들어올 뿐 신규 가입은 거의 없다는 게 창구직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소장펀드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적립식 펀드의 특성상 위험 부담이 커서다. 여유자금을 5년 이상 묶어둬야 한다는 부담감도 투자자들이 하악거림을 주머니를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증시가 부진하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초반 흥행에는 실패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박모(44)씨는 "주식과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도 크게 휘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가입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장펀드의 초기 흥행 실패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차츰 '뒷심'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채승훈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차장은 "매년 10~11월에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재

크 상품을 찾는데, 초반 판매상황은 부진하다라도 이 시즌에 소장펀드의 가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예금상품 대부분이 2~3%대의 저금리인 상황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소장펀드'가 지난 17일부터 증권사·은행·보험사 창구에서 일제히 판매되고 있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소장펀드 판매액은 102억3000만원으로 가입계좌는 모두 약 7만7000개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위·변조 어려운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전국은행연합회는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4월 1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는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보라색과 녹색으로 보이는 색 변형 잉크를 '자기앞수표'라고 쓰인 문자에 적용해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표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도 선명하고 문양도 총출해진다. 금융권은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지급할 때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다.

비교대사 시스템은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수표가 지급 제시됐을 때 발행 수표와 일치하지는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예정 2000포인트 돌파 기대감

지난주 글로벌주식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의 상단에서 주춤하는 가운데 모처럼 이머징국가의 지수 상승이 부각됐다. 3월 이후 글로벌시장에 약재로 작용했던 크림반도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 확산되는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은 26일 소집한 중국정부회의에서 리처창 총리가 시장부양책 성격의 발언을 하며 중국정부의 선제적 대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증시도 외국인인 120만만 초반까지 하락해 가격매력이 부각된 삼성전자와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후반 5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기관도 업종대표주 중심에서 투자 비중을 늘려 1980 포인트를 회복했다. 올해 들어 국내 대형주들은 우려가 지속되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증시에서 미래성장 잠재력에 기반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업종 등 중소형주가 차별화 현상을 보였다. 지난주 상승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주에 실적부담이 완화된 대형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2000포인트 돌파기대감이 높고 일시적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중국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미흡하고 뚜렷한 매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되었지만 코스피시장을 비롯해 이머징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순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박스권 상단 돌파나 2000포인트 안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0포인트 돌파시 추격매수보다는 차익실현의 기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다음달부터 3개월간 채무자 특별채무감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이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해 은행에 변제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이 기간에 2~5%로 낮추는 혜택을 준다.

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만 상환해도 연체금을 감면하거나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8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감면기간 내에 약정할 경우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했다.

전남신보는 지난해에도 특별채무감면을 실시, 총 31개 업체에 2억 2800만원을 회수하고 5700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용이율을 낮춰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파 농가 도움시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임직원은 지난 28일 농협하나로클럽 남악점에서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배농가를 위해 '양파 소비촉진 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생산된 양파를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방문 고객을 상대로 양파즙 무료 시식회도 진행됐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출범 1주일 KRX금시장 '절반의 성공'

시중가보다 싸지만 거래량 미미... '양성화' 효과 "글썽" 통해 금을 살 때 0.45% 내외의 거래수수료가 있고, 10%의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예약결제원에 내야 할 인출수수료(2만2000원)와 운송비도 추가된다. 결국 1kg짜리 골드바를 사서 찾을 때 내야 하는 최종가격은 4979만9503원으로 장내 매입가격 4495만원보다 10.8% (약 485만원) 비싸다. 그러나 이 가격은 시내 대형 귀금속상보다 3.02%, 골드뱅크 실물

출범 1주일을 맞은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의 금값이 시중 판매가보다 싸게 형성됐다. 하지만 유통업체가 귀금속상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보다 비싼데다 금시장 거래량도 대형 귀금속상보다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금거래 양성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KRX금시장에서 금값은 g당 4만4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거래소가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등이 제공하는 시세를 토대로 산출한 국제 금시세(g당 4만4597원)보다 0.8%(353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 소비자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인출 서비스보다 3.17% 각각 싸다. 업계에서는 '금거래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해결할 속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KRX금시장 거래 금현물은 소매가격 기준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유통업체가 귀금속상 등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이 큰 문제로 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RX금시장 가격은 금을 사려는 개인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실물사업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은근 슬쩍 거래되는 '뒷금'은 물론 세금을 내고 유통되는 '앞금' 수요도 장내로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집에서 아무때나 **무료**·허리짚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 효명 **휘나핫** 창립 18주년 할인행사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족욕,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부하 면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욕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따뜻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 (특허특특 제:0-096707호 발명의 명칭:세라믹 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연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문의:02-875-0600  
www.whinahot.com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효명주식회사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모집

**물 없는 휘나핫 족욕, 반신욕기**

특허특특 제 10-096707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시중 유사품 주의**  
본사 등록된 분만 사후관리 가능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무민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070-7804-5358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건강서: 박종훈 공저  
부형: 김성태 | 25,000원 | 45,000원 | 45,000원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된다.